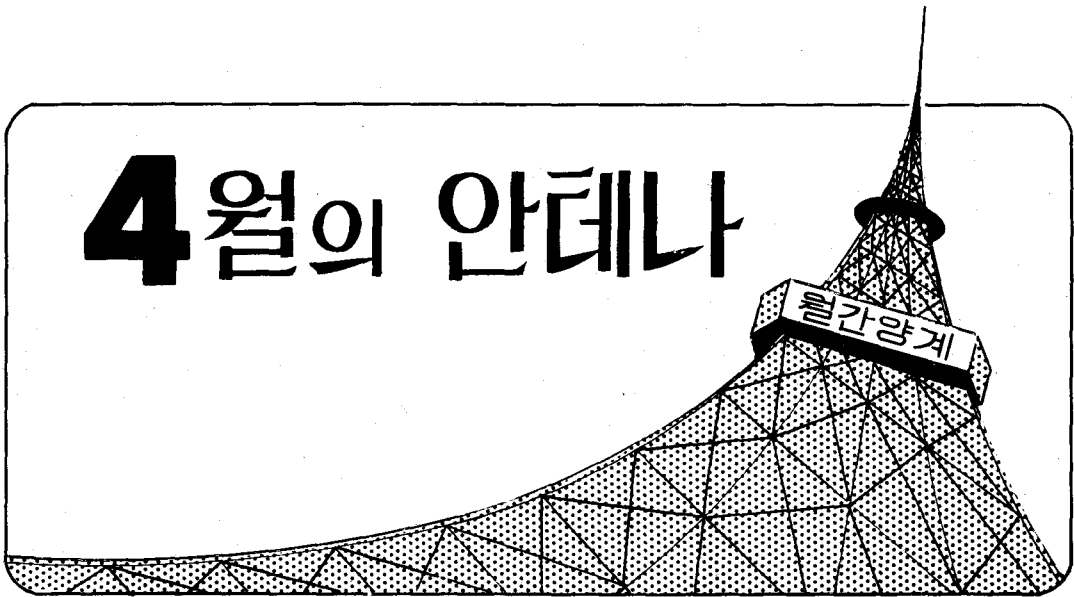


4월의 안테나



편견을 버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바로 보자

닭의 해라고 해서 방송신문(주간 월간 포함)들이 닭에 얽힌 고사를 소개하고, 닭의 예찬으로 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작년말 “꽃피는 봄이오면 부도 난다 말했지”하는 유행어는 우리 관련업계의 어려움을 말했으며 꽃피는 춘삼월에는 계란값이 폭등할 것으로 예측해서 양계인들이 희망으로 부풀었으나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는데도 계란값이 생산비선에 도달할 양계인의 봄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간간히 계란체화로 고통

을 하소연 하는 회원의 애절한 전화음성만이 들려올 뿐이다.

우리나라에 기업양계가 발전하기 시작한지도 이제 10여년이 넘어서고 있다.

10여년을 닭과 같이 양계인들이 생활하면서 어쩔수 없이 닭을 많이 닭아 가는것 같다 물론 닭아간다는데는 닭의 좋은점 뿐만 아니라 나쁜점 까지도 닭아가게 되는것 같다.

우리가 닭 하면 시골에서 자랄때 숫닭의 늠름한 모습을 보면 그 당당한 걸음걸이하며 두눈을 부라리며 가슴을 딱 펴고 사방을 살피는 그 자신만만한 자세를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닭은 두개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번에 한쪽 밖에는 보지 못한다.

우리도 한쪽눈을 가리고 보면 같은 물체인데도 두눈으로 볼때와는 또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세상을 한쪽눈으로 잘못 보는것을 편견(偏見)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또 조금전에 본것을 잊어버리고 현재만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까마귀 정신이니 또는 닭대가리라는 말로 표현 하는데 조금전에 본 것 까지도 잊어버리는 닭을 양계인이 닭아가

지 않나 생각된다.

편견과 고집을 「닭의 고집」이라고 한다.

우리는 과거의 값진 경험을 잊어버리고 현재를 바로 보지 못하고 편견을 갖는 수가 있다. 남이 쓰러지면 나는 산다는 편견도 문제이지만 막연히 제란값이 다음달에는 폭등할 것이라는 편견도 문제이다.

경기가 나빴으니 이제 좋은 경기는 올 것이고 그 때를 대비해서 수수를 늘린다. 닭들은 좋은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높이 날지 못하여 마당새 라고 흔히 불리워진다. 마당 안의 것도 다 보지 못하고 한쪽만 보는 닭을 닭지 말고 독수리와 같이 높이 올라서 내려다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것이 조감도(鳥瞰圖)이며 좀더 높은 곳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 양계업계를 바라볼때 불황이 호황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協會에 대한 사랑 지켜나가길

30일자 조간을 보니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기사에서 결론으로 청소년 문제 해결의 공통분모는 사랑이란다에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사랑을 잃어 버렸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부부사이에도 사랑이 식으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남남으로 갈라서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랑 중에서도 첫사랑은 더욱 귀중한 것 같다. 첫사랑은 첫째 어느면에서는 맹목적이며 이기적이 아니고 순수하며 둘째 열심이고 셋째 희생적이다.

양계산업이 근대화 하기 시작한 60년대 후반기의 양계업계는 사랑으로 뭉쳐 있었다.

우리는 흔히 양계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 되어야 하며 기업화 되기 위하여 피비린내 나는 경쟁을 통하여 적자만이 생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리도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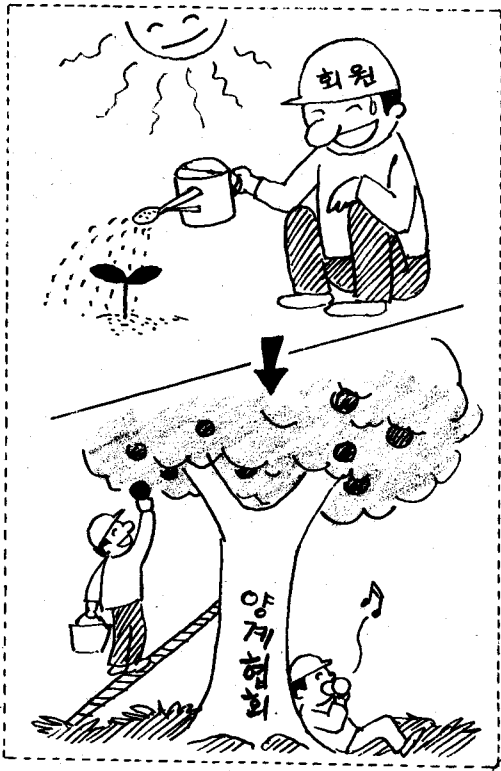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기업의 윤리 즉 사회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60년대 후반기에 탄생한 양계협회를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 아끼고 키워온 것은 양계인들의 사랑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양계장에서 닭을 기르는 양제인, 대학에서 가금학을 가르치는 교수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연구관, 행정기관 또는 유관 단체에서 양계를 하는 직장인등, 모든 양제인이 첫사랑의 뜨거운 힘으로 협회를 이끌어왔다. 이기적이 아니고 순수했으며 매달 모이는 열성을 보여왔으며 시간과 물질로 협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다

지금이야말로 첫사랑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것 같다.



수입쇠고기
근당 2,800원에
시판재개

닭고기 생산비를 더욱 절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닭고기의 또 하나의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동안 시판되지 않던 수입쇠고기가 다시 시판되기 시작한 것이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금년에 약 일 만톤을 수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물량으로는 국내 쇠고기 값을 더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역할만을 할 것이며 현재 보다 더 하락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78~79년에 경험한 바로는 쇠고기 값 그 자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일반 대중 요식 업소에서 값싼 쇠고기를 주로 한 음식을 판매하고, 우리의 전통 식관습으로 보아 돼지고기나 닭고기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쇠고기를 택하기 때문에 부로일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쇠고기 수입이 우리 축산업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한국 농촌 경제연구원에서 연구분석한 「축산물 비교 우위 분석과 수출입 정책」(허신행)에서 쇠고기 1만 M/T 을 수입하게 되면 1979년도 경상 가격으로 환산하여 단기적으로 쇠고기 1근당 (600g) 소매가격이 89원 떨어지면 돼지고기는 31원 떨어지고 육계 1마리당 53원이 떨어지게 된다.

축산물 공판장의 유리창에 “수입쇠고기 입하 근당 2800원” 이라고 써붙인 선전문이 유난히도 눈에 띄며 값싼 수입쇠고기를 사려고 줄선 주부들을 볼때 양계인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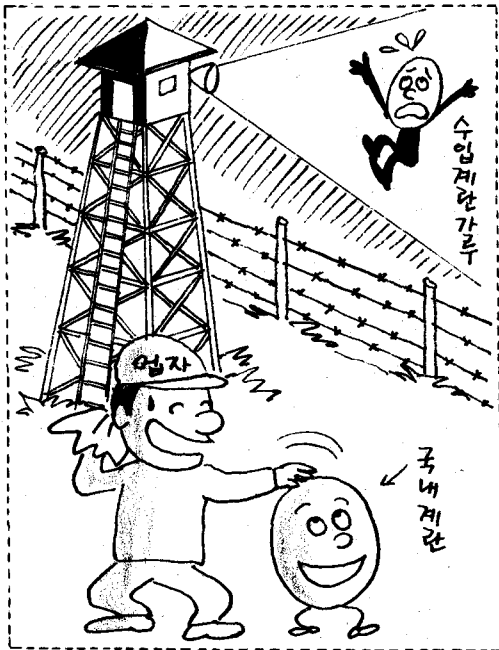


卵粉수입 앞으로 어려워질듯

그동안 양계업계가 어려운 중에도 난분이 수입되어 공업용으로 이용되어 옴으로써 양계업계에 어려움을 주어온것은 그간 본란을 통하여 소개될바 있다.

그간 관세를 80%선까지 대폭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계속 되어왔는데 이번에 감시 품목으로 됨으로써 앞으로는 수입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값이 폭등하게 되면 수입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란만은 자급할 수 있도록 양계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me인 도계기의 베스트 셀러

과학축산시스템

서울·용산구 한강로 3가 40-152
전화 : 792 - 7212 · 7887

수입
판매
엔지니어링